

## 창원 다호리유적출토 목재의 수종과 재질 분석

김수철 · 박원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 Species Identification and Microscopic Analysis of Woods Excavated from Daho-ri, Changwon

Soo-Choul Kim and Won-Kyu Park\*

Conservation Science Laborator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chool of Forest Resour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원삼국시대의 목관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다양한 무덤 등이 밀집 분포된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유적지 A지구 3호구 토탄층(약 2,000여년전)에서 출토된 목재 24점(가공목재 7점, 자연목재 17점)에 대하여 수종을 식별하였고 이중 자연목재에 대해서는 분해상태조사 및 재질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수종은 모두 활엽수 8종류로써 대부분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37.5%)와 오리나무속 오리나무류(25%)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나머지 수종으로는 밤나무(8.3%), 뽕나무아속(8.3%), 물푸레나무속(8.3%), 감탕나무속(4.1%), 복사나무(4.1%), 느티나무(4.1%)였다. 자연목재의 경우 최대함수율은 530%~1,015%에 이르며 목섬유의 2차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조직이 현저하게 분해되어 있었다. 가공목재 중에서 크기가 크고 물리적 강도가 요구되는 췌기와 원형자루는 재질이 단단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류인 반면 얇은 판재는 목재조직이 치밀한 뽕나무아속의 나무로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